
다망감시로서의 슈퍼 파놉티콘을 통한 현대사회의 시선의 권력관계

Power Relationship of Gaze in the Modern Society through the Super-panopticon as Multi-networks Supervision

구윤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상학과 박사과정

Yoon-Hee Koo(kd121973@gmail.com)

요약

이 연구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파놉티콘(Panopticon)을 시선의 권력관계로 해석한 것을 통해 현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여, 상호간의 의미를 현대의 시선적 권력 관계로 해석하였다.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현대인들이 어떠한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파놉티콘의 시선의 권력과 정보소비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도 분석하였다. 파놉티콘은 일방 감시 즉, 시선의 일방향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현대의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쌍방향성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일방감시와 다망감시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카드(smart card) 등의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은 근대 이후로 구조화된 일방감시의 체계를 다망감시체계로 변화시켜 놓았다.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선-권력'은 상호 수용의 문제, 정보의 구성에 따른 다양한 권력성, 그리고 소비 권력을 논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현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형식은 일방적 일방향성만을 전제한다기보다는 다망의 관계 속에서 상호소통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소통의 문제를 다망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도 시선의 권력관계를 정보소통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시선은 바라봄의 권력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파놉티콘 | 슈퍼파놉티콘 | 시선의 권력 | 다망감시 |

Abstract

What Michel Foucault has interpreted about Jeremy Bentham's Panopticon in the point of power relationship of one's gaze is put in comparison with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modern media and mutual meanings are interpreted in the respect of a power relationship of modern gaze. Modern people communicating through media are placed in certain type of power relationship.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it in the respect of the power of gaze in Panopticon and the consumption of information. Panopticon assumes single-network supervision, that is, one-way gaze. However, in modern media,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possible based up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study modern single-network supervision and multi-networks supervision based on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such as internet, mobile phone and smart card has changed the single-network supervision system structured since modern times into the multi-network supervision system. 'Gaze-power' presented in the relationship to media enables us to discuss the problem of mutual receptiveness, the presence of various powers according to information structure and consumption power. In particular, the form provided by modern media has the complexity of mutual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of multi-networks, rather than assuming only one-way nature of single-network. Therefore, the approach of communication issue provided by modern media in the respect of multi-networks relationship was done by the power relationship of gaze in the respec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Gaze determines the power of watching. In addition, the visualization format aims at the power.

■ keyword : | Panopticon | Super-Panopticon | Power of a Point View | New Media |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파놉티콘(Panopticon)을 시선의 권력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논점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을 현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특히 슈퍼 파놉티콘적 관점으로 비교하여 상호간의 의미를 현대의 시선적 관계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나타나는 현대의 ‘시선-권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술을 통한 권력 관계의 변화를 해석하고자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현대인들이 어떠한 권력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그것이 파놉티콘의 시선의 권력과 정보 소비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파놉티콘은 시선의 권력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신체를 훈육하는 근대 권력의 산물이었다. 이 근대의 감옥형태인 파놉티콘은 시선에 대해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인 의미에서도 현대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은 깊은 관계가 있다. 18세기 벤담의 파놉티콘은 비록 불발된 시도에 불과했지만 현대적 파놉티콘은 시선의 권력이 미디어에 의해 지배되고 소비되는 미디어의 영향권으로부터 관계하고 있다. 현대적 일상에 나타나는 시선의 권력관계는 변화하는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선의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들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사용자의 감시적 측면 보다는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의 기술과 콘텐츠 제공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시선-권력’의 관계를 사례화 하였고, 귀결적인 논점보다는 현상적 관계를 사례적으로 도출하고 접근하였다. 모든 미디어의 문제를 기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문제를 통해 시선의 권력관계가 변화하는 지점도 우회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푸코가 해석한 파놉티콘에 대한 권력관계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현대 미디어를 통한 시선의 권력관계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파놉티콘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찰, 관찰을 통한 평가-정상화와 표준화 가능-가 가능해진다. 파놉티콘 원리를 통해 결국 규율권력을 만들고 규율의 권력은 인간이란 객체를 가시화하여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파놉티콘은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인 흔적을 남겨주는 특징과 연관되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권력으로 자리 잡아 간다.”

파놉티콘은 일망감시 즉, 시선의 일방향성을 전제한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쌍방향성이 전제되기 보다는 보는 자의 ‘일방적인 바라봄’이 전제된다. 하지만 현대의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쌍방향성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일망감시와 기술을 통해 가능해진 다망감시체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미디어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자가 수용자들에게 행사하는 ‘시선-권력’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카드(smart card) 등의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은 근대 이후로 구조화된 일망감시의 체계를 다망감시체계로 변화시켜 놓았다. 이것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권력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선-권력’은 상호 수용의 문제, 정보의 구성에 따른 다양한 권력성, 그리고 소비 권력을 논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현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형식은 일방적 일방향성만을 전제한다기보다는 다망의 관계 속에서 상호소통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망의 감시체계가 가지는 권력관계를 통해 현대 미디어의 권력관계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러한 모든 시선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슈퍼 파놉티콘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소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슈퍼 파놉티콘의 범위로 한정하되, 그 관계를 시선의 문제로 한정하여 관계하였고, 그것을 해석하였다.

II. 파놉티콘과 일망감시

1. 파놉티콘의 구조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근대적 감옥인 파놉티콘은 근대의 수감의 형태의 감옥의 기능을 감시의 기능으로 바꾸어 놓으며 현대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파놉티콘은 그리스어로 '다 본다'(Pan : all + Opticon ; seeing 또는 vision)이라는 뜻으로 르보(Louis Le Vau)가 베르사이유에 건설한 왕립 동물원에서 착안하여 명명하였다. 근대감옥이 처벌보다는 인간의 정신을 다루려는 기획에서 등장한, 과거의 방식과는 단절된 하나의 사건이라면, 파놉티콘은 당시에 있었던 이런 사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건축 장치이다. 이러한 개념을 대두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로 그는 파놉티콘의 건축형태를 사회 구조의 시선 권력과 비교하여 일망감시시설을 통한 시선의 내면화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양면성을 통해 사회를 해석하였다. 그는 근대의 감옥과 파놉티콘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시선의 권력 저변의 내재한 시대적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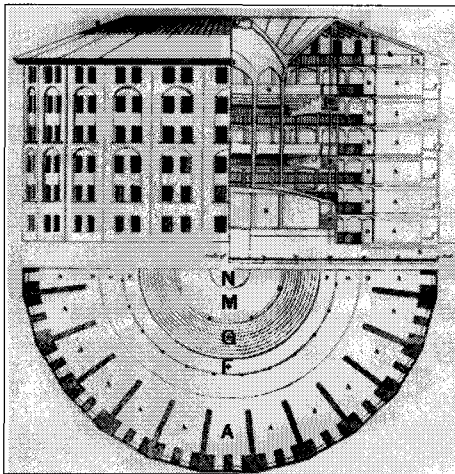


그림 1. 벤담의 파놉티콘.

[그림 1]은 벤담의 파놉티콘의 단면도로 반원의 바깥쪽 즉 A구역이 죄수의 방, 중앙의 F 구역이 감시의 공간, G구역이 죄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웅덩

이, N구역에 간수가 주로 머무는 곳이다. 죄수가 머무는 A 구역이 항상 밝은 조명으로 보이며 F 구역은 조명을 어둡게 하여 A 구역에 머무는 죄수들은 간수들의 활동을 살필 수 없고 항상 노출이 되는 죄수들은 간수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재화 한다. 내재화를 통해 죄수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발적으로 훈육되는 것이다.

2. 현대의 일망감시 체계 CCTV

현대판 일망감시 체계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TV)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 일반화 된 CCTV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1924년 스코틀랜드에서 소매치기가 숨겨진 카메라에 찍혀 추적 끝에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리버풀(Liverpool)의 한 쇼핑센터에서 10살짜리 두 명의 아이들이 2살짜리 영아를 죽인 사건을 계기로 영국 내에 대대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09년 현재 영국 내에 420만개가 넘어 간다고 한다. BBC방송에 따르면 1970년대 CCTV가 보급되기 시작한 뒤 2008년 5월 현재 전세계에 설치된 CCTV수는 2,500만여 대로, CCTV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개인 인권침해 및 사생활보장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05년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 테러 폭파사건으로 영국내의 CCTV 설치에 관한 반대 논란은 한동안 줄어들었다.

CCTV는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근무하는 김영목(51) 안전관리팀장의 퇴근길을 따라 실험해 본 결과 ‘거리 곳곳의 CCTV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동선(動線)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이날 87회 CCTV에 찍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코엑스에만 평일 78만명, 주말이면 15만 명이 찾는 코엑스 내에 설치된 CCTV 914대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코엑스는 단일 건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곳으로, 건물 안에 있는 24시간 관제센터만 7곳이다.”

[그림 2]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전 5시15분 용인시 수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전 5시22분 6900번

버스, 오전 6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오전 11시 삼성동 코엑스 종합안전상황실, 오후 3시20분 삼성동 코엑스 내 편의점, 오후 4시 삼성동 코엑스 에스컬레이터에서” CCTV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다. 위의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CCTV를 관리하는 책임자조차 CCTV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2. 김영목 코엑스 안전관리팀장의 하루 (2009년 3월 19일)

반면, CCTV는 푸코의 파놉티콘의 일망감시체계와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측면을 보인다. 파놉티콘의 경우 감시자가 피감시자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감시자가 감시체계를 내재화하여 스스로를 규율에 속박시킨다. 도심 속의 CCTV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화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CCTV를 외면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권력이 내재화되는 것이다.

표 1. 파놉티콘과 CCTV의 구조비교

구분	파놉티콘	CCTV
응시형시	일망감시	일망감시
소통형태	일방향 감시의 내면화	일방향 감시의 내면화
타자의 시선	드러나지 않음	드러남

[표 1]의 파놉티콘과 CCTV의 구조비교분석표를 보면, 타자의 시선 측면에서 파놉티콘은 감시자가 드러나지 않고 CCTV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다. CCTV의 경우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내재성과 동시에 일상화를 통한 내재화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일상

화는 겉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환경에 일부로 받아들여 결국에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행동하고 그로인해 감시의 구조는 내재화된다. [그림 2]와 같이 도시의 CCTV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설치되어 그것을 의식하기 보다는 그대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III. 정보 노출의 내재화 사회

1. 정보통신 기술과 슈퍼 파놉티콘

이 장에서는 파놉티콘에 대한 권력관계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다망감시적 시선의 권력관계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푸코의 파놉티콘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찰, 관찰을 통한 평가-정상화와 표준화 가능-가 가능해진다. 파놉티콘 원리를 통해 결국 규율권력을 만들고 규율의 권력은 인간이란 객체를 가시화하여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파놉티콘은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인 흔적을 남겨주는 특징과 연관되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권력으로 자리 잡아 간다.” 디지털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일망감시체계를 다망감시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 그 예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다망감시 체계의 사례는 스마트카드(smart card), Web의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한 방문자 통계, 웹 사이트 회원가입 등 이다. 정보통신기술로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를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소통의 자유화는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활용한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Mark Poster)에 의하면 “오늘날 <통신망>과 그것이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초(super) 파놉티콘은 슈퍼 파놉티콘을 말한다. 요컨대 벽과 창문, 망루나 감시자가 없는 감시체계를 이룬다. 감시기술의 양적 증대는 권력의 미시물리(微視 物理: microphysics)라는 질적 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나 기술의 변천은 그러한 변동과정의 일부뿐일 뿐

이다. 대중은 앞서의 질적 변동의 과정에서 감시에 길 들여지고 참여하도록 규율되어진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도시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사람들은 정보와 혜택을 얻고자 자신도 모르게 매순간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고 활용당하는 현대의 시스템을 ‘슈퍼 파놉티콘’이라고 한다.

2. 동적인 감시

① 스마트카드와 다망감시

“스마트카드(smart card)란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신용카드로 ISO의 규격은 IC가 1개 이상 내장되어 있는 모든 카드를 말한다. 기존의 자기카드(마그네틱카드)에 비하여 매우 큰 기억 용량과 고도의 기능 및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일상에서의 스마트카드의 종류를 살펴보면 교통카드, 은행카드, 신용카드, 하이패스카드 등 그 사용이 다양하다. 칩이 내장된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카드를 어디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록이 남게 된다. 자신의 동적인 이동이나 소비패턴 등을 모두 기록한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감시는 가게 점원이 신용카드를 긁어서 상품을 구입한 정보가 전화선을 타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동전을 거스르지 않는 편리함 대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② RFID를 통한 다망감시

2009년 10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무적으로 도내에 모든 애완견 몸에게 위치추적 칩을 심어 미아 견을 방지하도록 공표하였다. 애완견 소유자는 15자리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마이크로 칩을 주사기를 통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한 뒤,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위탁대행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을 기반

으로 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일상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반면 이것이 인간에게 활용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비록 치매노인이나 어린이가 미아방지에 사용한다면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 역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파놉티콘의 세상에 갇히게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방가 후 학습으로 어린이들의 활동범위가 증가하고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의 위치 추적 가능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휴대폰의 위치 알람 기능은 어린이가 휴대폰을 분실하였거나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RFID의 인체 이식은 수술에 의한 제거가 아니면 어디서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상업적 또는 반인간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그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 SF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2002)’와 ‘이글아이(Eagle Eye, 2008)’에서는 통제 인식을 통해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가상으로 그려냈고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위치추적 기능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유출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경우 인공위성과 단말기를 통해 이동위치가 모두 기록되어 이제는 범죄수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내비게이션 등 차량안내를 해주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경찰 수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복폭행’사건 당시 남대문 경찰서는 CCTV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의자의 차량에 장착된 GPS 등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행선지를 조사했다. 또한 그 밖의 범죄 조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정보통신의 순기능이지만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주행한 주행기록들이 모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자각하

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경우 또한 사용자의 동선 파악과 노출이 간편하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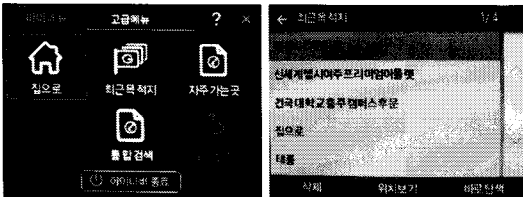


그림 3. 아이나비 최근목적지 메뉴

[그림 3]은 아이나비의 메뉴 중 최근 목적지의 메뉴 이미지이다. 최근 목적지 메뉴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면서도 자동차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개인기록으로 남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3. 네트워크를 통한 다망감시

①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CMS라 함은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IT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오범(Ovum)에서는 CMS에 대해 ‘e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모든 컨텐츠를 생성, 보관, 관리하는 일련의 작업(Task)과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맷의 컨텐츠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을 제작, 출판,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보통 컨텐츠 생성, 출판, 배포, 보관 등으로 정리되는 컨텐츠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CMS의 권력관계는 사용자의 선택 유·무 자체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사이트 방문자는 CMS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접근경로, 접근 이력사항 등이 비밀리에 노출된다. 사용자의 방문정보는 CMS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시행되는 일종의 시스템적 권력’이다. 사용자는 포털 사이트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 받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

수집행위와 취향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② 웹 사이트 회원가입과 인터넷 쇼핑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과 구매행위 등 다양한 지적, 경제적 활동이 일반화된 지금 웹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한 정보의 노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가입과 동시에 공개하지만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만 생각 한다” 회원가입 후 자신의 아이디(ID; identification number)로 정보수집 및 구매행위가 일어날 경우 개인의 취향과 소비행위는 더욱 적나라하게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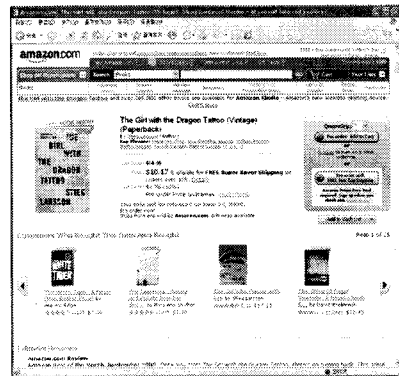


그림 4. 아마존 북 스토어

[그림 4]의 아마존(www.amazon.com) 북 스토어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한 책과 관련 서적을 추천하는 양식의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번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UI 구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의 경우도 구매한 책들과 구매하고 싶은 책들을 스크랩해 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는 인터넷 교보문고의 개인북로그로 자신이 구매한 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함과 동시에 책 소장의

만족감을 구매자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블로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구매 패턴과 관심 서적의 종류를 손쉽게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추천 서비스와 정보 관리 서비스도 소비자의 구매 형태 파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그림 5. 인터넷 교보문고 개인 블로그

③ 개인의 정보감시, 아이폰

애플컴퓨터는 2009년 5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WWDC(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에서 3.5세대적인 아이폰(3GS iPhone)을 출시하였는데, 이 아이폰은 분실 시 위치추적과 폰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삭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테이다 삭제, 정보 유출 방지, 정보의 통제를 존재하는 영역 밖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통제의 기능은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



그림 6. iPhone 3G

스스로가 원격으로 감시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는 현대 미디어를 소비하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V. 결론

정보통신기술은 파놉티콘의 일망감시적 권력을 다망 감시로 바꾸어 놓았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자의성(arbitrary)을 배제한 채, 매순간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감시자가 되었다. 디지털 매체들은 매시간, 매분, 매초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의 의지를 배제한 채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특성들은 TV,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인터넷 서핑 등 사람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인들도 결국 일망감시는 아니더라도, 이미 다망감시 속에 구속되어 살고 있다. 결국 시선(getz)의 가상적(virtual)인 존재성(presence)이 파놉티콘의 정보 소통의 관계였다면, 슈퍼 파놉티콘은 시선의 부재를 가상화(virtual)하여 정보를 소비하는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파놉티콘은 감시자의 감시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감시자의 존재는 가상화된다. 그러나 슈퍼 파놉티콘은 시선의 존재 자체가 가상화되어 감시자나 감시자의 시선 자체가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 문제는 과거에는 직접적인 시선으로부터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현대 미디어를 통한 사회구조에서는 시선의 관계만이 아니라, 시선관계와 유사한 통신과 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통해 새로운 감시의 권력관계를 생산해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과거의 감시는 타자로부터 구속된 것이지만, 현대의 감시는 일종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구성관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하지 않는 정보의 노출이나 정보의 자의적 사용은 역시 슈퍼 파놉티콘이 가지는 권력인 것이다.

푸코가 파놉티콘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파놉티콘에 대한 부정성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파놉티콘이 그 당시의 시선의 권력과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로서의 에피스테메, 그리고 지식-권력

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시선의 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단순히 시선의 권력 그 자체만을 논의의 중심에 놓기 보다는 그 권력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파놉티콘은 국문의 번역서에 따라 파놉티콘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연음법칙에 의해 파놉티콘이라고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파놉티콘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2] 장승권, 디지털 권력, 삼성경제연구소, pp.29-31, 2007.

[3] 제러미 벤담, 신권수 옮김, 파놉티콘, 책세상, p.11, 2007.

[4]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p.23, 2008.

[5] 홍성욱, 위의 책, pp.22-23.

[6] <http://eppinggreen.tistory.com/1>

[7] http://icam.icam.co.kr/customer/news/index.jsp?menu=view&board_idx=150

[8] http://www.ibga.co.kr/news/news_contents.php?no=1899

[9] <http://www.cine21.com>

[10] 이진혁, 김현석, “푸코의 권력이론과 파놉티콘을 통한 ‘미니홈피’의 권력요소 분석”, Vol.10, No.3, p.367, 2009.

[11] 장승권, 디지털 권력, 삼성경제연구소, pp.29-31, 2007.

[12] 문헌에 따라 초 파놉티콘, 슈퍼 파놉티콘 등으로 사용되나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는 초 파놉티콘을 사용한다.

[13] 마크포스터, 김성기 옮김,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pp.176-177, 1994.

[14] 두산백과사전

[15] 홍성욱, 위의 책, p.100. 재인용. Mark Poster, “Database as Discours, or Electronic Interpo-lations,” in Paul Heelas ed., Detraditionan-lization : Critical Reflections on Authority and Identity(Cam-bridge, Mass.: Blackwell, 1996), pp.277-293, 1996.

[16] http://imnews.imbc.com/news/further/index.asp?pageUrl=http://imnews.imbc.com/news/further/society/2123419_2906.html

[17] 매일경제, 2009년 4월 14일

[18] <http://blog.naver.com/rockey4?Redirect=Log&logNo=130014817516>

[19] 홍성욱, p.101, 위의 책.

저자 소개

구 윤 희(Yoon-Hee Koo)

중신회원



- 2006년 9월 :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GUI, User-ability, New Media